

해명자료

문의 : 네트워크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김광수 과장(☎750-2770)
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정섭 사무관(☎750-2775) laputa@kcc.go.kr

구글 개인정보정책 변경 관련 보도내용 사실과 달라

‘12. 3. 26.(월) 머니투데이방송 “구글, 한국 개인정보 통합 방침 바꾼다. 전세계에서 첫 사례” 제하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.

□ 보도 내용

“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코리아를 통해 구글 본사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해 다음달 초까지 한국에 맞는 새 개인정보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며 이는 글로벌 첫 사례”라고 보도함

□ 해명 내용

1.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28일 구글의 통합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.
2.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구글과 동 개선 권고안의 적용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. 아울러 협의 완료 후 개선권고 안의 수용 또는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처분 등 추후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입니다. 끝.